

보복운전 큰 코 다친다...광주·전남 전담수사팀 가동

‘욕설 격분’ 13km 위협운전 40대 입건 경찰, 폭력행위 규정 내달까지 특별단속 진로방해·급제동 등 악질운전 엄단키로

지난 7일 밤 10시10분께 광산구 신창동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켜졌지만 김모(40)씨 화물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A(27)씨가 경적을 누르더니 창문을 열고 욕설을 내뱉은 뒤 앞서갔다. 김씨는 순간 격분, 13km 떨어진 동광산 헬기이트까지 A씨 차량을 쫓았다.

김씨는 A씨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뒤 욕설을 하며 때릴 듯 달려들었다. 장면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운전)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욕설을 한 A씨 잘못이 있지만 보복 운전은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를 입건했다.

지난 3월 14일 새벽 5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45)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류모(31)씨 등 3명은 승합차량을 타고 여수국가산업단지 B씨 회사까지 무려 24km나 B씨의 차량을 쫓으며 집요하게 보복운전을 했다가 2명이 구속됐다. 당시 B씨는 “112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앞만 보고 차를 몰았다.”고 했다.



광주·전남 경찰이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감시경 경찰청장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운전은 차량을 흥기로 활용한, 불법성이 강한 위협이 큰 폭력행위”로 언급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면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9일까지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을 꾸리고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보복운전 행위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흥기 등 협박죄’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전담팀은 진로 방해 등을 트집잡아 상대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이거나 앞으로 들어

와 급제동을 하는 등 차량을 무기 삼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보복 운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되는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무질서 행위가 심각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보복 운전 피해 신고가 36건이 발생, 38명이 붙잡히고 이중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질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보복 운전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흥기’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사안에 따라 죄질이 극히 불량할 경우 가해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받게되며 피해 운전자도 욕설, 위협 운전을 할 경우 경찰에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기자 khh@kwangju.co.kr

노동상담소 운영 허위 서류 수년간 역대 보조금 가로채

여수 한국노총간부 입건

여수경찰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여수시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4) 한국노총 여수지역본부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수시청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250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노동상담소장 A씨를 임명한 뒤 A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보조금을 식비 등 조잡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여수시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경찰은 노동상담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 조모(46·6급)씨와 김모(50·7급)씨도 허위 문서 작성 등 노동상담소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조금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태풍 ‘찬홈’ 영향 구름 236mm 등 많은 비 농경지 400ha 침수·125ha 낙과 피해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주말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태풍 영향으로 구름에 236.5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 영암 191mm ▲보성 186.5mm ▲장흥 171mm ▲완도 132mm ▲강진 102mm ▲여수 78.6mm ▲광주 38.2mm 등의 비가 내렸다. 태풍의 이동으로 흑산도, 흥도, 목포, 완도 등은 순간 풍속 초속 30m 넘는 강풍이 몰아쳤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주의보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해제됐다.

이날 내린 비로 해남과 진도, 화순의 경우 이날 내린 비로 농경지 400.9ha가 침수됐다. 또 순천과 곡성 등 전남 지역 사고와

배 농가 125ha에서 낙과 피해가 잇따랐다. 또 목포와 여수, 완도를 오가는 55개 항로 92척이 전면통제 됐다.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지리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

기상청은 13일 오전까지 10~40mm 비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제11호 태풍 ‘남카’(NANGKA)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오는 17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과 남해서부 등 일부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비가 와도 좋아...손연재 보러 가는 길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진행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의 경기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우산을 쓴 채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자친구 흥기 살해 서부경찰,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여자친구를 흥기로 찢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자신의 원룸에서 흥기 중인 여자친구 A(24)씨를 흥기로 수차례 찢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0여 분 뒤인 이날 오전 6시 18분께 112 경찰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옛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추궁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집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형주기자 khh@kwangju.co.kr

여주 20대녀, 헤어진 남친집서 행패

○~20대 여성이 새벽, 술에 취해 헤어진 남친 친구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전 남자 친구의 신고로 경찰서 행.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모(여·29)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A(37)씨 원룸을 찾아가 10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소란을 피우다가 하연, 문을 열고 나온 A씨에게도 목과 손목을 칼질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25일 2년간 사귀다 헤어진 뒤 크리스마스에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A씨의 신고로 입건.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05:28 | 맑음 02:57
해진 19:48 | 달림 17:10

태풍 ‘찬홈’은 가고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그쳐졌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보성	완도	여수	영광	진도	전주	남원	강진	해남	장성
비온뒤	23/26	22/25	22/26	22/24	23/26	22/25	23/27	23/26	22/26	22/26	23/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2.0~3.0	남~남서 1.5~2.5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4.0	남~남서 2.0~4.0
남해 앞바다(동)	남~남서 2.0~3.0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서)	남~남서 2.0~4.0	남~남서 2.0~4.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50 / 00:00	05:15 / 17:21
여수	07:00 / 19:42	00:57 / 13:01

주간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날씨	☁	☁	☁	☁	☁	☁	☁
온도	22/31	22/32	22/32	22/31	23/29	23/31	23/31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8516	1	완도군 광일읍 황곡리 634 630㎡ [농지취득권]	전	5,991,300 경5978(중복)	2014타경 8516
2014타경 8813	1	해남군 화원면 장촌리 산21 8628㎡ [강경읍]	임야	6,902,400	자연매각
2014타경 9045	1	해남군 목천면 산계리 산106 9917㎡	임야	35,454,100	일괄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8622	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060 1022㎡ 완도군 완도읍 청혜천서로 92 1층126.5㎡	대 사무소, 단독주택	184,771,780 184,771,780	일괄매각, 대국민 살인자취외건물 [참고]1동소채, 2014타경9069(중복)
2014타경 8684	1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959 496㎡ 해남군 화원면 공릉로 1046 193.59㎡	최경종지 대	100,891,720 100,891,720	일괄매각, 재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915	1	선착항: 전남 완도군 노회읍 선막의출류역 영장: 동력선상선호 선종: FPP 총톤수: 1,57 전수년월일: 2004.8.17	선박	8,163,140 8,163,140	정박지토는보통 소: 완도군노회읍 북고리선착장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2015. 7.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원상